보 도 해 명 자 료
('15.10.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"양자 FTA에만 치중…다자협상 큰 흐름 놓친 한국" 제하 기사 ('15.10.7, 서울경제)

1. 보도내용(요지)

□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신통상정책 로드맵(2013.6월)은 양자 FTA 위주의 통상전략으로 양자 FTA에서 다자 메가 FTA로 옮겨가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2013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신통상 로드맵이 양자 FTA 위주의 통상전략만 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
○ 신통상로드맵은 RCEP, TPP 등 메가 FTA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,

-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통합시장과 미국 주도 환태평양 통합시장을 연결하는 핵심축(linchpin)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골자로,

- RCEP, 한-중-일 FTA, TPP에 대한 기본 전략을 담고 있음
(『새정부의 新통상 로드맵(p.5)』, 2013.6.13, 보도자료 첨부)

□ 또한 적극적인 메가 FTA 대응 전략을 담은 "신통상로드맵 추진상황 평가 및 향후계획"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('15.4.7)하여 추진하고 있음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서덕호 과장(044-203-5620)